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08.31



KOSPI | 다각화된금융

스틱인베스트먼트 (026890)

자본효율성 극대화 주주환원 정책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상황

- 올해 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 성장성 목표로 2028년 AUM(운용자산) 15조원(2015년말 대비 46%증가), FPAUM(Fee-Paying AUM) 11조원(60%증가) 제시. 수익성 목표는 ROE 10% 이상, FRE(Fee-Related Earnings) Margin 35% 이상임
- 주주환원 정책은 기존 현금배당 중심에서 Capital Allocation 체계로 전환.
목표로 연평균 20% 이상의 총주주수익률 달성을 제시. 이를 위해 주식보상 중심의 보상체계 개편으로 임직원과 주주와의 이해관계 일치해 주주가치 제고할 예정

체크포인트

-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6월말 기준 운용자산 10.5조원, 운용인력 71명 보유
- 투자포인트는 1) 지속적인 AUM 성장에 따른 FRE 증가와 2)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주주환원정책
- 스틱인베스트먼트의 2026년 예상 PBR은 1.1배로, Historical Band 중하단에 위치. 최근 최대주주변경 기대 소멸로 조정을 받은 주가가 리레이팅 하기 위해선 FRE 성장에 기반한 이익 안정성 제고와 구조적 ROE 상승 확인이 필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999년에 설립된 PEF운용회사. 2026년 6월말 기준 AUM(운용자산)은 10.5조원이며, 심사인력은 71명. 종속회사로 1) 스틱벤처스(벤처캐피탈)와 2) 스틱알터너티브자산운용(대체투자전문 자산운용사)이 있음.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1) 장기간 축적된 투자 트랙레코드와 2) 가치제고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자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역량임

투자포인트1. 지속적인 AUM성장에 따른 FRE 증가

스틱인베스트먼트의 AUM은 1999년 400억원에서 올해 6월 10.5조원으로 지속적 증가. AUM성장은 장기간 축적된 성공적인 투자 및 회수 Track Record와 LP(출자자) 다양화에 따른 펀드레이징 경쟁력에 기인. 올해 상반기 부동산 부문에서 6,500억원 자금 모집성공에 이어, 하반기 PEF 부문에서 약 1조원의 추가 펀드레이징 추진 중. 원활한 펀드레이징에 따른 AUM 증가는 관리보수 및 FRE(Fee-Related Earnings)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 중

투자포인트2. 자본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주주환원 정책

올해 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기존 현금배당 중심에서 투자수익률과 자사주 매입·소각, 현금배당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Capital Allocation 체계로 전환. 목표로 2028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총주주수익률(TSR, Total Shareholder Return) 달성을 제시. 핵심은 보유 현금 활용처를 배당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영역에 우선적 배분한다는 것. 올해 3월 보통주 290.7만주, 약 348억원 규모의 자사주 이익소각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수익(억원)	604	938	795	912	864
%YoY(%)	-58.2	55.1	-15.2	14.8	-5.3
영업이익(억원)	103	331	134	172	194
OP마진(%)	17.1	35.3	16.9	18.8	22.4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58	276	93	150	168
EPS(원)	433	754	258	417	467
%YoY(%)	-71.8	74.1	-65.8	61.6	11.8
PER(배)	11.9	9.2	33.4	22.5	17.9
PBR(배)	0.8	1.0	1.3	1.3	1.1
PSR(배)	3.1	2.7	3.9	3.7	3.5
ROE(%)	6.8	11.4	3.7	6.0	6.3
배당수익률(%)	3.6	3.5	2.9	-	-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가(08/26)	8,370원
52주 최고가	13,010원
52주 최저가	6,220원
KOSPI(08/26)	6,808.21p
자본금	208억원
시가총액	325십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3,800만주
평균거래량(60일)	9만주
평균거래대금(60일)	7억원
외국인지분율	48.82%
주요주주	Miri Capital Management LLC 26.88%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72	-300	-15.3
상대주가	5.3	-35.2	-60.4

▶ 기업 밸류업 공시 법안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기업 개요

1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장기간
축적된 투자 Track Record와
자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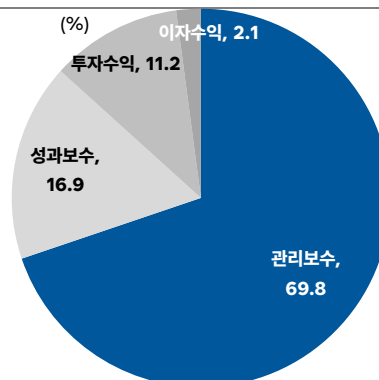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사모투자(Private Equity)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펀드’ 또는 PEF(Private Equity Fund))운용회사이다. 동사는 국내 코스피 시장에 유일하게 상장된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로, 한국을 포함한 팬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체투자전문 그룹이다. 1999년에 설립되어 26년간 다양한 산업/경제 사이클을 겪으면서 풍부한 투자 경험과 우수한 성과를 축적해왔다. 2026년 6월말 기준 AUM (Asset Under Management)은 10.5조원이며 임직원 수는 심사인력 71명을 포함하여 100명이 있다.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장기간 축적된 투자 Track Record와 자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역량이다. 2006년 PEF 운용을 시작한 이후 1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를 집행했으며, 주요 회수 사례로는 하이브(투자원금 대비 5.13배), 골프존(4.42배), 유비케어(1.72배) 등이 있다.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투자 이후 기업가치를 직접 제고하기 위한 가치제고 전담조직(Operating Partners Group: OPG)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경쟁사와 차별화 요소다. 가치제고 전담조직은 2008년 창설되었으며, 평균 30년 이상의 산업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핵심 인력 영입 및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ESG 측면에서도 국내 PEF 운용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에서 금융 섹터 A등급을, 한국ESG기준원 평가에서는 종합 B+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상장 PEF운용사라는 특성상 일반적인 비상장 운용사 대비 정보공개와 주주환원, 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 차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동사의 매출액은 관리보수(비중 69.8%, 2025년 기준), 성과보수(16.9%), 투자수익(11.2%)과 이자수익(2.1%)로 구성되어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매출액(영업이익) 구성(2025년 기준)



자료: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혁: 1999년 설립,
2021년 상장**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21년 디피씨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며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전신은 1999년 설립된 스틱아이티벤처투자, 설립 당시 정보통신부로부터 IT 전문 창업투자회사 인증을 획득하며 벤처투자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투자 영역을 확대하며 2006년 최초의 PEF인 'Oryx/STIC Korean Technology Fund'를 결성, 본격적으로 사모투자 시장에 진출했다. 2007년에는 사명을 현재의 스틱인베스트먼트로 변경했으며, 2008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를 설립하며 해외 투자 기반을 구축했다.

PEF 시장 진출 이후 펀드 규모를 지속 확대하며 국내 대형 PEF 운용사로 성장했다. 2016년 6,032억원 규모의 스틱스페셜시추이션 PEF를 결성하는 등 대형 펀드 운용 역량을 확보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투자지역을 확대했다.

2018년에는 사업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벤처투자 부문을 스틱벤처스로 인적분할하고, 부동산·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를 담당하는 스틱알터너티브자산운용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기존 PE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VC 및 Alternative Investment까지 투자 영역을 확대하며 종합 대체투자 운용사로의 기반을 구축했다.

2021년은 동사의 사업구조가 크게 변화한 시점이다. KOSPI 상장사인 모회사 디피씨가 100% 자회사였던 스틱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한 후 존속법인의 사명을 스틱인베스트먼트로 변경했다. 이후 2022년 기존 제조사업을 물적분할·매각하면서 투자운용사업 중심의 상장사로 사업구조를 재편했다. 같은 해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며 아시아 지역 투자 및 글로벌 LP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기반도 강화했다.

2023년에는 약 2조원 규모의 '스틱오퍼튜니티 제3호 PEF'를 결성하며 대형 펀드 운용 역량을 재확인했다. 또한 스틱알터너티브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편입하며 PE뿐 아니라 VC, 부동산·인프라 등으로 이어지는 대체투자 플랫폼을 구축했다.

2024년 12월에는 강신우 대표이사가 취임하며 전문경영인 중심의 경영체제를 강화했다. 2026년 3월에는 도용환 창업자의 지분 매각이 완료되면서 Miri Capital이 최대주주로 변경됐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주요 연혁

1999 ~ 2008 국내 1세대 사모펀드 탄생	2009 ~ 2020 Top Tier 사모펀드 운용사로 도약	2021년 ~ 현재 국내 유일의 사모펀드 상장사
1999 스틱아이티벤처투자(現, 스틱인베스트먼트(주)) 설립 정보통신부 IT전문창업투자회사 인증 2006 Oryx/STIC Korean Technology Fund 결성 (최초 PEF 펀드) 2007 스틱인베스트먼트(주)로 사명 변경 2008 호치민 사무소 설립	2009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우정사업본부 선정 최우수 자산 운용사) 2010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국민연금기금 운용 대체 투자부문 우수사) 2011 한국벤처캐피탈 대상 'Best Exit Deal' 수상 2013 한국벤처캐피탈 대상 'Best Exit Deal' 수상 한국벤처캐피탈 대상 'Best Exit Deal' 수상 Asian Investor Korea Awards 2013 PE부문 최우수 운용사 한국 정책 금융공사 선정 PE부문 우수 운용사 선정 'The Start-Up Korea KVC 2013' 올해의 최우수 펀드 선정 2014 한국 벤처 캐피탈 대상 'Best Private Equity House' 우정 사업 본부 표창 (PEF 운용수익률 기여) 2015 한국벤처캐피탈 대상 'Best Investment Deal' 수상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PEF 펀드레이징 리더 부문 2016 한국IB 대상 Best PEF 부문 수상 한국벤처 캐피탈 대상 'Best Private Equity House' 수상 스틱스패셜 시추에이션 PEF 결성(6,032억원) 2017 한국벤처 캐피탈 대상 'Best Private Equity House' 수상 2018 한국벤처 캐피탈 대상 'Best Private Equity House' 수상 스틱얼터너티브 자산운용(하산설) 스틱벤처스(주) 인적분할 2019 스틱스패셜 시추에이션 제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결성(12조원)	2021 디피씨 주식회사(제조부문)에출수합병 스틱인베스트먼트(주) KOSPI 상장 2022 디피씨 주식회사(제조부문) 물적분할 디피씨 주식회사(제조부문) 매각 싱가포르 법인 설립 공정위 PEF 전업 집단 지정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PEF딜리타수상 Innovative Player of the Year 수상 2023 스틱 오피튜리티 제삼호 PEF 결성(2조원) 스틱 얼터너티브 자산운용(주) 자회사면임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PEF 최우수 ESG 부문 (한국 예탁결제원 시상상) 2026 최대주주변경 (The Miri Strategic Emerging Markets Fund LP)

자료: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는 The Miri Strategic Emerging Market Fund로 지분을 26.88% 보유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는 The Miri Strategic Emerging Market Fund로, 지분을 26.88%를 보유 중이다. 자사주로 2,700,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분율 6.96%에 해당한다. 이 외 주요 주주는 얼라인파트너스(5.55%)가 있다. The Miri Strategic Emerging Market Fund는 Miri Capital이 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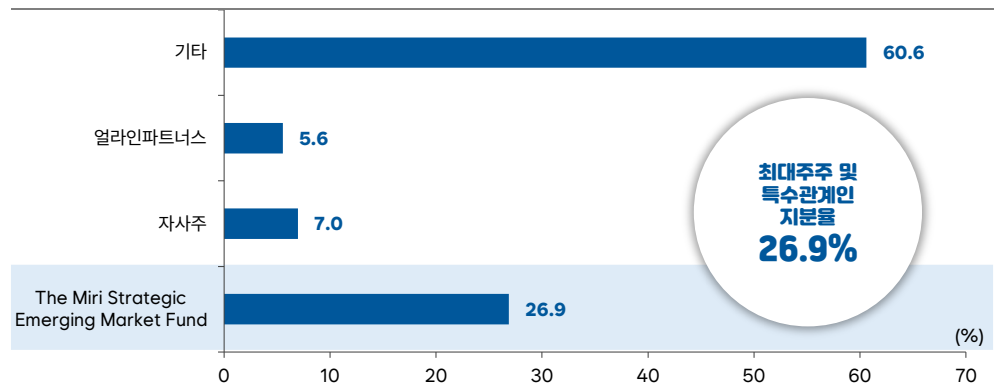
동사의 지배구조는 2026년 들어 중요한 변화를 맞았다. 2026년 1월 20일 창업자인 도용환 회장과 Miri Capital 측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3월 4일 거래가 종결되면서 Miri Capital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1999년 설립 이후 이어져 온 창업자 중심의 소유구조가 사실상 종료되고 기관투자자가 최대주주인 구조로 전환됐다.

Miri Capital은 대표적인 상장시장 투자펀드인 The Miri Strategic Emerging Market Fund LP와 사모투자 펀드인 The Miri Opportunities Fund LP를 통해 약 12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북미, 유럽, 아시아에 기반을 둔 50개 이상의 자산재단, 대학 기금, 기관 패밀리 오피스 등 장기 성향의 기관투자자를 위해 자본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Miri Capital과 정보 공유 및 독립경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정보 공유와 지분 보유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을 정하고, 계열 분리와 독립 경영 보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최대주주 변경 이후에도 기존 경영진과 임직원이 운용 및 경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Miri Capital은 최대주주로서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지원하는 구조다. PEF 운용사의 핵심 자산이 개별 투자자산보다는 운용인력, 투자 트랙레코드 및 LP 네트워크에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과 핵심 운용인력의 연속성은 중요하다.

Miri Capital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도 긍정적 요인이다. 미국 패밀리오피스와 기관투자자 등 해외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스틱인베스트먼트의 해외 LP(Limited Partner: 출자자) 기반 확대 및 펀드레이징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LP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관투자자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주요 주주 현황(2026년 6월말 기준)



자료: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종속회사

종속회사:

1) 스틱벤처스(주)

2) 스틱얼터너티브

3) 자산운용(주) STIC

Investment SG Pte.Ltd

4) STIC Debt-Platform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 1호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종속회사로는 1) 스틱벤처스(주)(지분율 100%), 2)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주)(100%), 3) STIC Investment SG Pte.Ltd(100%)와 4) STIC Debt-Platform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 1호(98.52%)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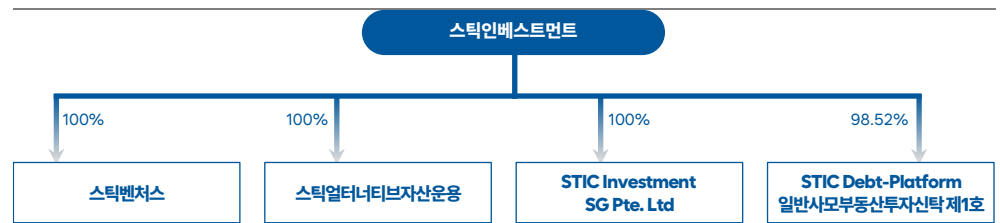
스티크벤처스는 창업 초기 및 성장 단계의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담당하는 VC(Venture Capital) 전문 자회사다.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는 것이 주요 사업으로, 2018년 7월 사업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스틱인베스트먼트에서 인적분할돼 설립됐다. 2026년 6월말 기준 운용자산은 8,596억원으로 그룹 전체 AUM의 8.2%를 차지한다. 2026년 6월말 기준 자산총액은 405억원, 2026년 상반기 영업수익과 당기순이익은 75억원, 10억원을 기록했다. 본사의 대형 PE 및 Growth Capital과 달리 초기·성장단계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룹의 투자영역을 기업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티크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다. 국내외 부동산·인프라 자산뿐 아니라 Credit 및 Mezzanine 등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6월 설립됐으며, 사업이 안정화된 이후 2023년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2026년 6월말 기준 AUM은 2조 6,354억원으로 그룹 전체 AUM의 25.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6년 6월말 기준 자산총액은 308억원, 2026년 상반기 영업수익과 당기순이익은 62억원, 10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Alternative 사업 확대는 그룹의 AUM 성장뿐 아니라 전통적인 PE의 투자·회수 사이클에 대한 실적 의존도를 낮추고 관리 보수 기반 수익원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STIC Investment SG Pte. Ltd.는 해외 투자 및 글로벌 펀드레이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22년 4월 설립된 싱가포르 현지법인이다. 싱가포르 법인은 그룹의 Pan-Asia 투자 확대와 함께 해외 기관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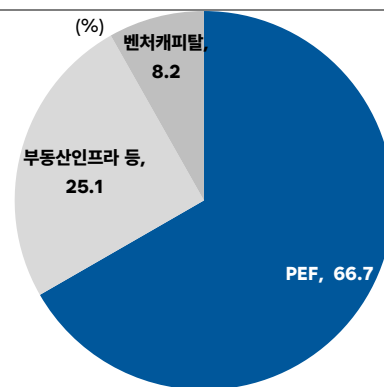
이외 투자목적의 신탁형 기구인 STIC Debt-Platform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가 연결대상에 포함돼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종속회사 현황(2026년 6월말 기준)



자료: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사업영역별 운용자산 비중(2026년 6월말 기준)



자료: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4 주요 사업

주요 사업영역:

- 1) PEF(관리보수의 76.9%)
- 2) VC(13.0%)
- 3) 부동산인프라 등(10.1%)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1) PEF, 2) VC(벤처캐피탈)과 3) 부동산인프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PEF(운용자산의 66.7%(2026년 6월말 기준), 관리보수의 76.9%(2025년 기준))

PEF는 스틱인베스트먼트의 핵심 사업으로, 당사는 2006년 PEF 시장에 진출한 국내 1세대 운용사다. 장기간 축적한 투자·회수 Track Record를 기반으로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 이후 기업가치 제고와 회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PEF는 자금을 출자하는 LP(Limited Partner)와 펀드의 투자 의사결정 및 운용을 담당하는 GP(General Partner)로 구성된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GP로서 연기금·공제회·금융기관 등 LP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 및 회수 전 과정을 담당한다.

동사의 PEF 관련 수익원은 크게 1) 관리보수(Management Fee), 2) 성과보수(Carried Interest), 3) GP 출자금 투자수익으로 구분된다.

관리보수는 실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반복수익이다. 펀드 운용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며, 통상 약정액 또는 투자잔액 등에 일정 보수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펀드별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1~2% 수준의 보수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규 펀드 결성과 AUM 확대는 관리보수의 증가를 통해 Fee Related Earnings(FRE)의 구조적 성장으로 연결된다.

성과보수는 이익의 Upside를 결정한다. 투자성과가 펀드별로 정해진 기준수익률(Hurdle Rate)을 상회할 경우 GP가 약정된 비율에 따라 성과보수를 수취한다. 일반적인 PEF 구조에서는 IRR 8% 수준의 Hurdle Rate와 20% 내외의 Carry가 활용되지만 실제 조건은 펀드별로 상이하다. 관리보수와 달리 투자자산의 회수 시점과 성과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Exit(회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외에도 스틱인베스트먼트는 GP로서 펀드에 자기자본을 직접 출자하며, 해당 투자에서 발생하는 GP 출자금 투자수익을 인식한다. 이는 GP와 LP 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투자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적인 자기자본 수익으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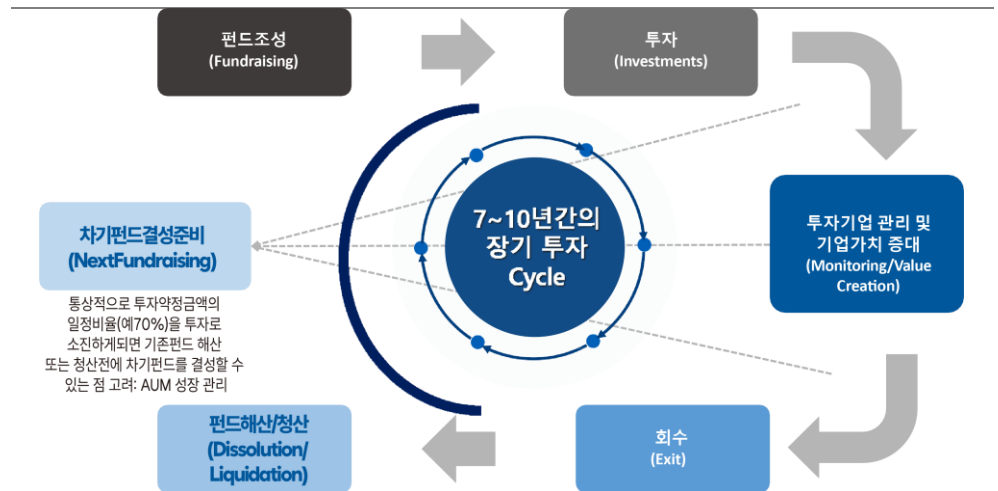
PEF는 일반적으로 펀드조성(Fundraising) → 투자(Investment) → 투자기업 관리 및 기업가치 증대(Monitoring /Value Creation) → 회수(Exit) → 펀드 해산/청산(Dissolution/Liquidation)으로 이어지는 7~10년의 장기 운용주기를 갖는다.

먼저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출자약정을 확보해 펀드를 결성한다. 이후 약정된 자금을 순차적으로 집행해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 이후에는 경영 효율화, 사업구조 개선, 핵심인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이 과정에서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Operating Partners Group(OPG)을 활용해 포트폴리오 기업의 기업가치 증대를 지원한다.

기업가치 제고 이후 IPO, 전략적 투자자(SI) 매각, 다른 PEF로의 Secondary Sale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성공적인 Exit는 당장의 성과보수뿐 아니라 LP의 자금 회수, Track Record 개선, 차기 펀드레이징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PEF 사업에서 Exit는 하나의 펀드를 끝내는 과정인 동시에 다음 펀드의 성장을 시작하는 과정이다. 기존 펀드의 투자집행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 차기 펀드레이징에 착수함으로써 Fee-paying AUM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AUM 성장을 추구한다.

PEF의 운용주기



자료: 스타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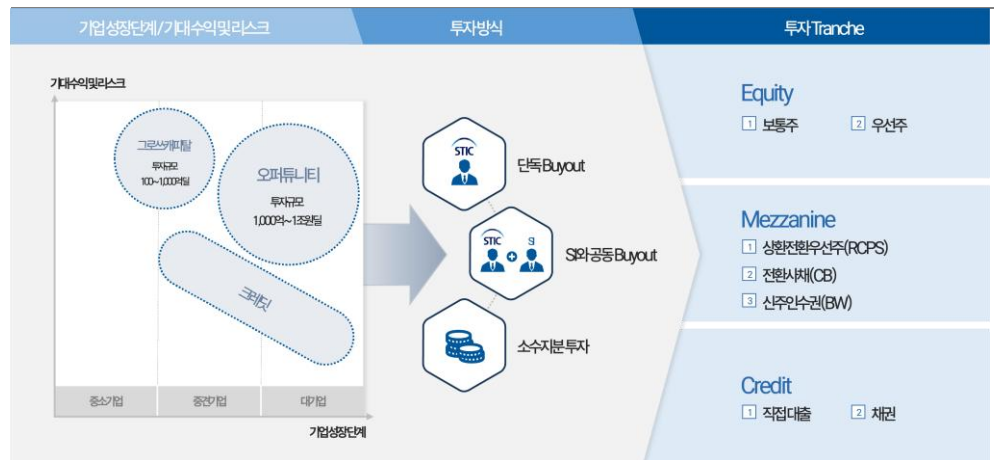
스탁인베스트먼트의 PEF 사업은 투자 규모와 전략에 따라 Opportunity, Growth Capital, Credit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Opportunity는 1,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의 대형 Deal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Buyout과 전략적 투자를 담당한다.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의 기업가치 제고가 요구되는 만큼 동사의 장기간 축적된 Track Record와 OPG 역량이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영역이다. 동사의 외형 성장을 주도했으며, 현재 PEF운용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이다.

Growth Capital은 100억~1,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자금을 공급한다. 경영권 인수보다는 소수지분 투자 및 다양한 구조화 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에 참여하며, 향후 IPO나 M&A 등을 통한 자본차익을 추구한다.

Credit은 Mezzanine과 Private Debt 등을 활용해 기업에 자금조달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전통적인 Equity 투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Opportunity·Growth 중심의 기존 사업에 새로운 수익원을 추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스틱인베스트먼트 PEF의 투자 스펙트럼



자료: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②벤처캐피탈(운용자산의 8.2%(2026년 6월말 기준), 관리보수의 13.0%(2025년 기준))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0% 자회사인 스틱벤처스(STIC Ventures)를 통해 벤처캐피탈(VC)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8년 PE와 VC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틱인베스트먼트에서 인적분할했으며, 현재 그룹 내 초기·성장단계 기업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VC 사업은 PE와 마찬가지로 외부 LP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결성하고 기업에 투자한 뒤, 기업가치 상승 이후 지분을 회수하는 구조다. 다만 대규모 Buyout 및 Growth Capital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PE와 달리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의 기업에 소수지분 형태로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VC 단계에서 발굴한 우수 기업이 성장할 경우 향후 그룹의 Growth Capital이나 PE 투자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이럴 시 단순히 VC AUM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Deal Sourcing 영역을 초기기업까지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VC 사업의 기본적인 수익구조는 PE와 유사하다. 펀드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보수가 반복적인 수익 기반을 형성하며, 투자성과가 펀드별 약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성과보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다만 투자성과에서 PE와 차이가 존재한다. VC는 초기·성장기업의 소수지분에 투자하는 만큼 개별 기업의 투자성과 편차가 크다. 일부 성공적인 투자는 투자원금 대비 수배에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사업모델이 안착하지 못한 투자에서는 손실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개별 투자에서는 High Risk·High Return 특성이 강하지만, 다수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펀드 전체의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수 방식 역시 차이가 있다. Buyout PE는 전략적 투자자(SI) 매각이나 다른 PEF로의 Secondary Sale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반면,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VC에서는 IPO가 중요한 회수 방법이다. 이에 따라 IPO 시장의 활성화 여부가 투자회수 속도와 성과보수 발생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③부동산인프라 등(운용자산의 25.1%(2026년 6월말 기준), 관리보수의 10.1%(2025년 기준))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0% 자회사인 스틱알터너티브자산운용(STIC Alternative Asset Management)을 통해 부동산·인프라 등 실물자산 중심의 대체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투자영역은 국내외 부동산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크레딧, 메자닌, SPC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Top-tier 운용사와의 Partnership을 활용한 해외 재간접펀드 등 다양한 투자구조를 통해 국내 직접투자에 집중된 포트폴리오의 지역·자산별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Alternative 사업의 수익구조 역시 기본적으로 관리보수 중심의 운용보수 사업이다. 부동산·인프라 펀드는 PE·VC 대비 상대적으로 관리보수율이 낮은 반면, 장기간 운용되는 대규모 자산이 많아 안정적인 Fee-paying AUM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대형 에너지 인프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투자증권과 공동으로 SK가스 울산 발전소 관련 약 1.4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약 6,500억원 규모의 펀드레이징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북미 Midstream, 유럽 Income Real Estate, 글로벌 도로 인프라 등 다양한 지역과 자산군을 대상으로 사모투자신탁을 운용하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Alternative 사업의 가치 증대(Value Creation) 방식은 투자대상에 따라 차별화된다.

인프라 자산은 사업시행자의 정기적인 운영보고를 기반으로 수익성과 주요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해외 투자자산의 경우 현지 운용사 및 공동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운영현황을 관리한다. 장기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자산의 운영 안정성과 계약구조, 현금흐름의 지속가능성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부동산 자산은 임대율 제고, 임대조건 개선, 유지·보수 및 자산 개선 등을 통해 NOI(Net Operating Income)를 높이고 자산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결국 임대수익 확대 → NOI 개선 → 자산가치 상승 → Exit 수익률 제고가 핵심 Value Creation 구조다.

개발사업에서는 토지 취득부터 설계, 인허가 및 시공관리까지 개발 전 과정에 관여한다. 펀드 조성 이후 개발 과정에서 목표했던 비용 등이 확정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실물 부동산보다는 변동성이 높아 리스크를 고려하여 목표하는 수익률을 높게 설정하게 된다.

매각 또는 청산은 금리와 부동산·인프라 시장의 Valuation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히 부동산은 금리 하락 → Cap Rate(자본수익률) 하락 → 자산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어 금리 및 자금조달 환경이 Exit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다.

산업 현황

**글로벌 PE산업은 저금리와 기관
투자자의 대체 투자 확대로 지난
20년여년간 빠르게 성장. 2022년
이후 금리 상승하며, PE 운용사의
핵심 경쟁력이 펀드레이징에서
투자한 기업의 가치 제고 능력으로
이동 중**

글로벌 사모투자(PE)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투자산업 중 하나다. 과거 PE가 소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재매각하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인식됐다면, 현재는 기업의 성장자금 공급과 구조조정, 사업재편, M&A 등 실물경제의 자본 재배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M&A 시장에서 PE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 수준에 이르는 것은 이러한 위상 변화를 보여준다.

PE 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 확대가 자리한다. 연기금, 보험사, 국부펀드 등 장기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만으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PE를 비롯한 사모자산의 비중을 확대했다. 대규모 자금이 PE로 유입되면서 운용사(GP)의 대형화가 진행됐고, 글로벌 선도 GP들은 PE를 넘어 Private Credit, Infrastructure, Real Estate 등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며 종합 대체투자 운용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PE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2010년대 PE 수익률에는 기업의 본질적인 실적 개선뿐 아니라 저금리에 따른 차입비용 하락과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 반면 2022년 이후 글로벌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러한 수익창출 방식의 지속 가능성은 낮아졌다. 인수금융 비용 상승으로 거래가 위축됐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눈높이 차이가 확대되면서 Exit 역시 지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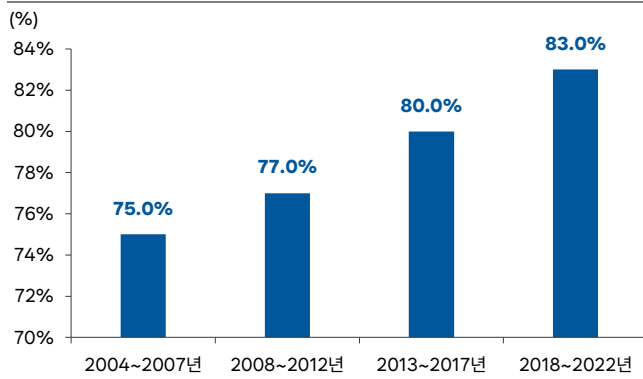
이에 따라 글로벌 PE 산업의 경쟁력은 펀드레이징에서 투자한 기업의 가치 제고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투자기업의 매출 성장뿐 아니라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조직 효율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Bolt-on M&A(추가 인수) 등을 통해 EBITDA와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Operational Value Creation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와 멀티플 상승이 만들어준 수익률에서 벗어나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개선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중요해진 것이다.

PE 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대형 운용사 중심의 자금 집중이다. PE는 투자성과가 차기 펀드레이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우수한 Track Record를 보유한 GP는 기존 LP의 재출자를 확보하기 쉽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펀드를 결성할 수 있다. 대형 펀드는 다시 대규모 거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Exit은 브랜드와 Track Record를 강화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위 GP와 중소형 GP 사이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실제 미국 PE 시장의 운용사별 누적 자금모집 Gini 계수는 2004~2007년 0.75에서 2018~2022년 0.83으로 상승했다.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한 미국에서도 자금이 선도 운용사로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PE도 같은 기간 Gini 계수는 0.54에서 0.73으로 상승했다. 절대적인 집중도는 미국보다 낮지만 방향성은 동일하다. 국내 PE 시장 역시 산업이 성숙할수록 자금조달과 Track Record를 갖춘 상위 GP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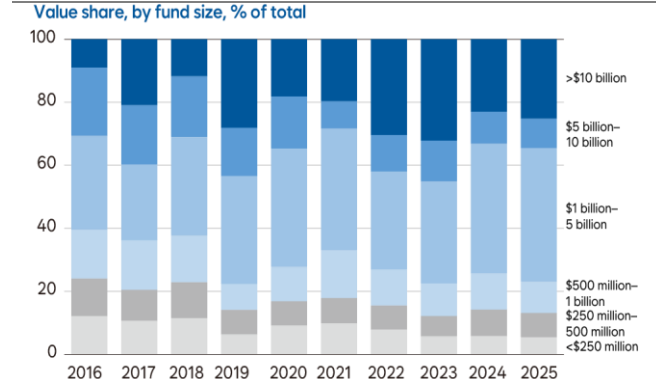
PE 산업에서 이러한 자금 집중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 PE 투자는 투자기간이 길고 투자성과를 단기간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LP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규 GP보다 기존에 우수한 회수 실적을 보여준 GP를 선택할 유인이 크다. 특히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화된다. 실제 국내에서도 2022년 이후 기준금리 상승으로 펀드레이징 환경이 악화되면서 상위 운용사의 자금모집 집중도가 다시 상승했다.

미국 PE의 자금모집 Gini계수 추이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PE산업에서 펀드 사이즈에 펀드레이징 비율 추이



자료: McKinsey,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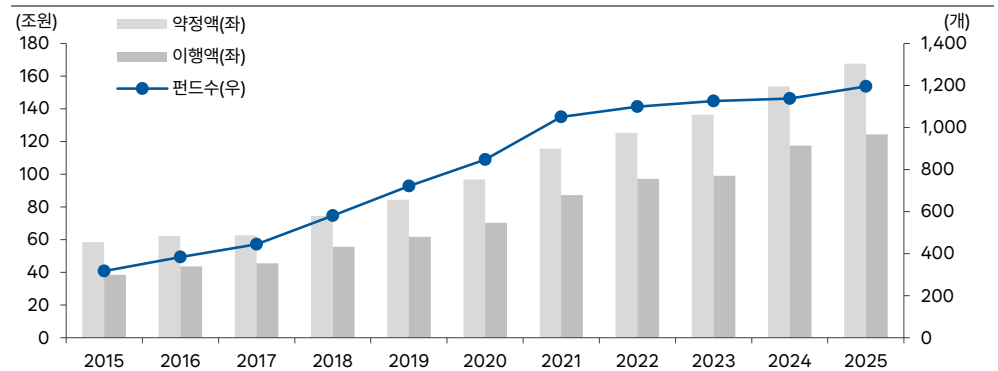
국내 PE산업은 2024년에 제도 도입,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운용 자율성 확대되었으나, 최근 홀플러스 사태로 규제 강화 추세. 2025년말 국내 PEF 약정액은 167.5조원

국내 PE 산업 역시 지난 20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2004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사모투자전문회사'라는 이름으로 PE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2021년 기관전용사모펀드로 제도가 변화하면서 산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특히,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경영 참여 목적 지분 투자 의무(10%를: PEF가 투자 시,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는 룰)가 폐지되고 투자 영역 제한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소수지분 인수, 대출, 구조화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해지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사모펀드의 결성규모는 136.4조원, 펀드 수는 1,126개에 달한다. 2005~2023년 결성 규모와 펀드 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0.6%, 27.1%를 기록했다. 운용사 역시 2007년 말 35개에서 2023년 말 422개로 증가했다. 특히 독립계 운용사의 비중이 같은 기간 48.6%에서 74.9%로 상승하면서 은행·증권 등 금융회사 계열 중심이던 초기 시장에서 전문 독립계 GP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말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1,195개, 출자 약정액은 167.5조원, 투자이행액은 124.3조원을 기록했다. 2024년 말 대비 각각 5.1%, 9.0%, 5.8%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출자약정액은 고금리와 M&A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5.6조원에서 2025년 167.5조원으로 최근 4년간 52조원 증가했다.

국내 PEF의 약정액과 이행액, 펀드 개수 추이



자료: 금감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E는 국내 M&A 시장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국내 전체 M&A에서 PE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래규모와 건수 모두 10% 미만이었으나, 2020년대 들어 거래규모 기준 약 30%, 건수 기준 40% 이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국내 PE의 역할은 대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이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PE가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공급했다. 이러한 거래규모만 30조원을 크게 상회하며, 국내 자본을 기반으로 외국계 자본에 대응할 M&A 주체를 육성한다는 PE 제도 도입의 초기 목적을 상당 부분 감당했다.

국내 PEF 업계의 최근 트렌드로는 1) 리테일화와 세미리퀴드 구조의 확산, 2) 운용 자율성 확대에서 GP 책임 강화로 규제 방향 전환이 있다.

글로벌 사모시장의 투자자 저변이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PE 펀드는 통상 7~10년 이상의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폐쇄형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분기·반기 등 일정 주기로 제한적인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세미리퀴드(Semi-liquid)·에버그린(Evergreen) 구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장기간 자금이 묶인다는 사모자산의 한계를 완화하면서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개인자금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대형 운용사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블랙스톤, KKR, 아폴로 등은 기관투자자 중심의 자금조달에서 벗어나 Private Wealth 채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증권사·자산운용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사모대출 및 대체투자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삼성증권이 블랙스톤의 BCRED-O (Blackstone Private Credit Fund iCapital Offshore Access Fund SPC)에 투자하는 상품을 약 1,500억원 규모로 모집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 PEF 시장 전체에서 세미리퀴드 구조가 보편화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지만, 글로벌 사모시장의 리테일화가 국내 자산관리 시장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국내 PEF 규제의 무게중심도 변화하고 있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은 경영참여형 PEF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하고 이른바 ‘10% 룰’을 폐지하는 등 운용 자율성을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 PEF는 경영권 인수 중심의 Buyout에서 벗어나 소수지분, Growth Capital, 메자닌 등으로 투자전략을 다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반면 최근에는 운용 자율성 확대에서 GP의 책임성과 내부통제 강화로 규제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홀플러 스 사태를 계기로 PEF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이해관계자 보호, GP의 책임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은

PEF 규율체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 시 한 차례 위반만으로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GP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일정 규모 이상 GP의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등이 추진되고 있다. 감독당국에 대한 PEF·GP의 보고 범위 역시 확대하는 방향이다. 일부 조치는 아직 입법 과정에 있지만, 2021년 이후 확대됐던 운용 자율성에 상응해 GP의 책임과 감독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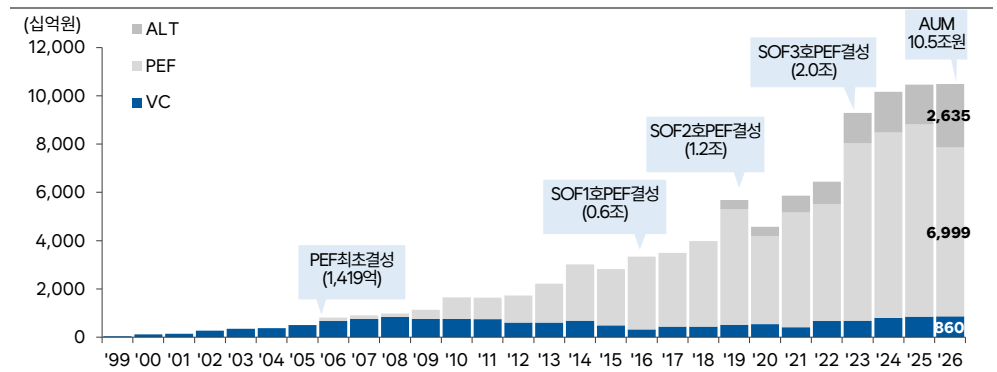
1 지속적인 AUM 성장에 따른 FRE(Fee Related Earning) 증가

투자포인트1. 지속적인 AUM 성장에 따른 FRE 증가.
스틱인베스트먼트의 AUM은 1999년 4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10.4조원으로 지속적 증가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첫번째 투자포인트는 지속적인 AUM 성장에 따른 FRE(Fee Related Earning)의 증가이다. FRE(Fee-Related Earnings)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을 기반으로 운용사의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력을 평가하는 Non-GAAP 성과지표다. 관리보수 및 재무·경영자문 수수료에서 관련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용을 차감해 산출하며, 성과보수나 투자수익 등 변동성이 높은 이익을 제외해 운용사의 경영상적인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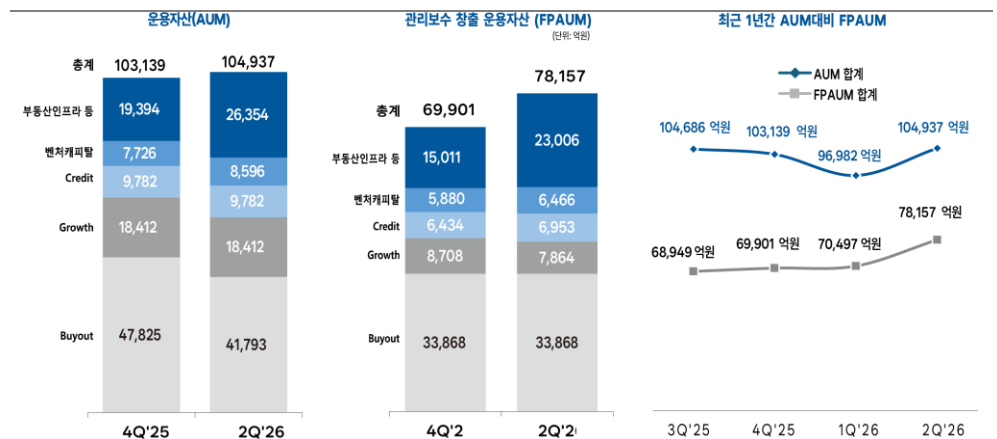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999년 VC로 출발해 2006년 PEF 시장에 진출한 이후 대형 블라인드 펀드 결성을 기반으로 AUM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2016년 약 0.6조원 규모의 SOF 1호를 시작으로 2019년 SOF 2호 1.2조원, 2023년 오퍼튜니티 3호 약 2.0조원까지 주력 펀드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AUM 역시 계단식 성장을 이어왔다. 2026년 2분기 기준 그룹 AUM은 약 10.5조원으로 PE 7.1조원, 부동산·인프라 2.6조원, VC 0.8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AU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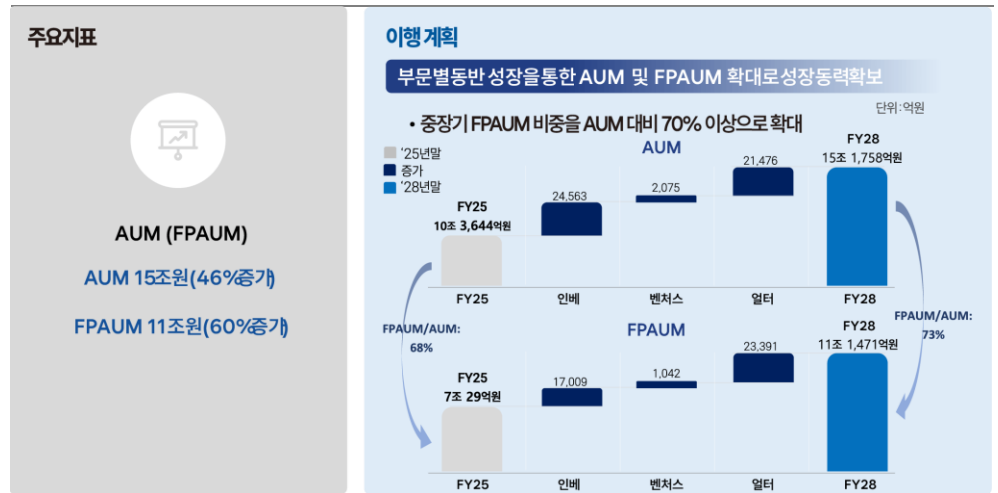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자료: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스틱인베스트먼트 2026년 운용자산 및 FPAUM 현황



자료: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스틱인베스트먼트 중장기 성장 경영전략



자료: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UM성장은 장기간 추적된
성공적인 투자 및 회수 Track
Record와 LP다양화에 따른
펀드레이징 경쟁력에 기인**

스틱인베스트먼트의 AUM 성장을 뒷받침하는 펀드레이징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Growth Capital부문은 산업은행 출자사업 등에 선정되며 하반기 중 약 1조원 규모의 추가 펀드레이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인프라 부문에서도 2026년 상반기 SK가스 울산 발전소 투자를 위한 약 6,500억원 규모의 자금 모집에 성공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블라인드 펀드의 후속 결성이 AUM 성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펀드의 투자 소진 속도를 감안하면 2027년 후반~2028년경 차기 대형 블라인드 펀드 결성이 예상되며, 과거 SOF 시리즈의 대형화 과정에서 확인됐듯 차기 펀드 결성은 AUM과 FPAUM(Fee-Paying Assets Under Management)의 추가적인 레벨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회사는 2028년 AUM 15조원(2025년 말 대비 46% 증가), FPAUM 11조원(60% 증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장기간 축적된 성공적인 투자 및 회수 Track Record는 추가 펀드레이징의 핵심 경쟁력 요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대표적 성공 회수 사례로는 하이브(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약 1,500억원을 투자해 8,000~9,000억원을 회수했으며, 대경오앤티는 투자원금 대비 3.46배의 회수 성과를 기록하며 2023년 252억원의 성과보수 인식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골프존 4.42배, 아크로스 3.39배, MDS테크 2.00배, HK이노엔 1.82배, 유비케어 1.72배, 한화시스템 1.62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성공적인 회수 경험을 축적해왔다. 글로벌 PE사례를 보면 전략, 보유기간, 레버리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투자원금 대비 2.0배 이상을 성공적인 투자라고 평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다수의 검증된 Track Record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포트폴리오 중 가시적인 Exit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으로는 DN솔루션즈와 코프마케팅이 있다. DN솔루션즈는 스틱이 프로젝트 펀드 등을 통해 대규모 Pre-IPO 투자를 집행한 주요 포트폴리오로, 향후 IPO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금 회수와 함께 의미 있는 Track Record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코프마케팅 역시 기존 펀드의 주요 잔여 포트폴리오로, 향후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펀드 청산 및 추가 성과보수 인식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사는 LP 기반의 다변화도 향후 펀드레이징에 긍정적이다. 동사는 최대주주 미래캐피탈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패밀리오피스와 연기금 등 해외 LP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관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에서 글로벌 LP로 출자자 기반이 확대될 경우 펀드레이징 규모의 대형화뿐 아니라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역시 제고할 수 있다.

스탁인베스트먼트 Track Record: 주요 회수 사례

HYBE	GOLFZON	(주)대경O&T	RFHIC	LIG넥스원
하이브	골프존	대경오앤티	RFHIC	LIG넥스원
- BTS소속인터테인먼트 - 투자금액: 1,400억 - 지분투자 - Multiple: 513x	- 스크린골프 - 투자금액: 200억 - 지분투자 - Multiple: 442x	- 동식물성유지제조회 - 투자금액: 951억 - 비이닷 - Multiple: 346x	- 무선통신반도체 - 투자금액: 428억 - 지분투자 - Multiple: 261x	- 글로벌종합정유산업체 - 투자금액: 1,500억 - 비이닷 - Multiple: 214x
UBcare	inno.N	한화시스템	ACROSS	MDS테크
유비케어	HK이노엔	한화시스템	아크로스	MDS테크
- 헬스케어솔루션 - 투자금액: 797억 - 지분투자 - Multiple: 172x	- 바이오헬스케어 - 투자금액: 800억 - 공통인수 - Multiple: 182x	- 방산전자시스템 - 투자금액: 1,500억 - 지분투자 - Multiple: 162x	- 팔루메트릭스(화학지회사) - 투자금액: 210억 - 지분투자 - Multiple: 338x	- 안테나칩솔루션회사 - 투자금액: 467억 - 비이닷 - Multiple: 200x

자료: 스타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스탁인베스트먼트 투자포트폴리오

	PE(오퍼튜니티)	Growth Capital	Credit
주요 포트폴리오			

자료: 스타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UM 및 FPAUM증가는
관리보수 및 FRE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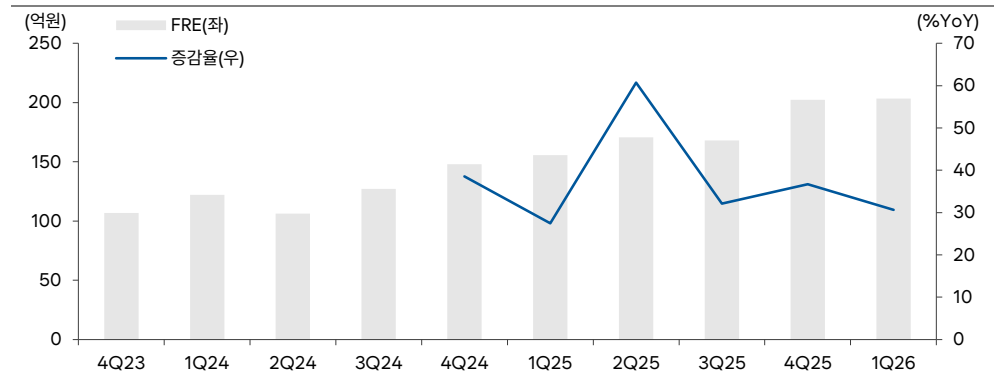
이와 같은 후속 펀드레이징에 따른 AUM 및 FPAUM증가는 관리보수 및 FRE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

동사의 LTM(Last Twelve Months) 기준 FRE는 4Q23 107억원에서 4Q24 148억원, 4Q25 202억원으로 확대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Q26 FPAUM은 7.0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해 향후 관리보수 수익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향후에는 FPAUM 성장과 Operating Leverage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FRE가 FPAUM보다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PE 운용업은 AUM이 증가하더라도 운용 인력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 비용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대형 펀드 결성에 따른 관리보수 증가는 FRE Margin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여기에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확대와 관리보수가 제한적인 노후 펀드의 청산이 진행될 경우 비용 효율화 효과도 기대된다.

2025년 기준 FRE Margin은 약 31.8%로 글로벌 대형 대체투자 운용사(통상 약 46%)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회사는 2028년까지 FPAUM 11조원과 FRE Margin 3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할 경우 FPAUM은 현재 대비 60% 확대되는 동시에 관리보수 수익 증가와 비용 레버리지 효과가 맞물리면서 FRE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FRE(관리보수 손익) 추이(LTM 기준)



자료: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스틱인베스트먼트 중장기 자본효율성 경영 전략 (2028년 목표)

주요지표	이행 계획
수익성개선 ROE 10% 이상 FRE Margin 35% 이상	효율적인자본 재배치로 ROE 및 FRE margin 향상 -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GP 투자로 자본 효율성 극대화 -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개편으로 수익성 향상 - 점진적으로 고정성 보상에서 성과위주 보상으로 비중 조정 - FRE margin 35% 이상 달성 * 당사 25말(E) FRE margin : 31.8%, 주요 글로벌 PEF FRE margin 평균 : 46.1% 관리보수가발생하는AUM (FPAUM) 비중 확대 - 관리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펀드의 조속한 청산으로 수익성 개선

자료: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본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주주 환원 정책

**투자포인트2. 자본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주주환원정책
연평균 20% 이상의
총주주수익률을 목표로 제시**

스틱인베스트먼트의 두번째 투자포인트는 자본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주주환원정책이다.

동사는 올해 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주주환원정책에서는 기존 현금배당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수익률과 자사주 매입·소각, 현금배당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Capital Allocation 체계로 전환했다. 중장기적으로 배당과 주가 상승을 합산한 총주주수익률(TSR, Total Shareholder Return)을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2028년 연평균 20% 이상의 TSR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핵심은 보유 현금의 활용처를 배당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영역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SK가스 울산 발전소 등 전력 인프라 투자와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한 재투자를 우선했다. 향후에도 성장 투자 및 GP Commitment(GP 의무 출자금, 통상 펀드액의 3% 수준)의 기대 수익률이 배당수익률을 상회할 경우 내부 재투자를 우선하는 탄력적인 배당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자사주 매입·소각 역시 주요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3월 보통주 290.7만주, 약 348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하면서 유동주식수 감소를 통한 주당가치 제고에 나섰다. 특히 주가가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구간에서는 현금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소각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가 수준에 따른 탄력적인 자사주 활용이 예상된다.

한편 자기주식 일부는 핵심 임직원에 대한 RSU(Restricted Stock Unit) 등 주식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적 자산이 투자성과와 펀드레이징 경쟁력을 좌우하는 PE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장기 주가 성과와 임직원 보상을 연계하는 RSU는 핵심인력 Retention과 주주·임직원 간 이해관계 일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는 꾸준한 현금 배당 중심의 과거 주주환원정책과 대조된다. 동사의 주당 배당금은 2020년 90원에서 2024년 25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배당성향의 경우 2020년~2021년 10%대에서 2022년~2023년 30~40%까지 상승했고, 2024년에는 96.67%를 기록했다. 즉, 과거에는 소액주주 및 기존 개인 최대주주의 니즈에 맞추어 현금 배당을 늘려왔다면, 올해 초 최대주주가 미국의 대체투자 전문사인 Miri Capital로 변경된 후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사주 소각 및 자본효율성 극대화 쪽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주당가치 제고 여부는 신규 펀드에 대한 GP Commitment 및 자기자본 투자, 자사주 소각의 지속성, 그리고 RSU를 통한 핵심 인력 유지 효과가 실제 AUM 성장과 FRE 확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주환원 전략(2028년 목표)

주요지표	이행 계획
 총주주수익률(TSR) 연평균 총주주수익률(TSR) 20% 이상 달성	주식보상중심의 보상체계개편으로 임직원과 주주와의 이해관계를 일치하여 주가 상승 견인 • 핵심경영진에 대한 주식기반 보상(RSU) 시행 ✓ 총부여 RSU: 125만주(총발행주식수의 약 3%) ✓ 1차: 전체파트너에게 목표주가 15,000원*달성 시 15만주 부여 *연속하는 20 거래일동안 회사발행주식의 각종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 • 기존 보유 자기주식 중 추가 RSU 부여도 적극 검토 • RSU 부여분 외 보유 자기주식은 소각 • 추후 자기주식 추가매입과 이를 활용한 RSU 추가부여 및 소각도 고려

자료: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5년 실적 Review

2025년 영업수익
912억원(+14.8%YoY),
영업이익 172억원(+28.1%YoY)
기록

2025년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영업수익은 9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관리보수는 636억원으로 6.3% 증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성과보수는 154억원으로 전년도 88억원 대비 75% 급증했다. 하이브와 한화시스템 등을 통해 우수한 투자성적을 기록한 SOF 1호의 회수 및 청산이 진행되면서 누적 투자 성과에 대한 성과보수가 발생한 데 기인한다. 투자수익도 102억원으로 25.5% 증가했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17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고, 지배주주 당기순이익도 150억원으로 61.4% 급증했다. 상반기 포트폴리오 Exit 지연과 비용 부담으로 실적이 부진했으나, 4Q 순이익이 126억원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연간 이익 회복을 견인했다.

2025년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사업부문별 실적은 주력 PE 부문의 견조한 펀드레이징과 부동산·인프라 부문의 AUM 확대가 특징적이다. 반면 투자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PE의 투자집행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VC 부문 역시 신규 자금 유입과 회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주력 PE 부문의 2025년 말 AUM은 7.6조원으로 그룹 전체 AUM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간 신규 펀드레이징은 4,6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하며 자금 모집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반면 투자 집행은 5,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6.6% 감소했다. 투자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투자에 선별적으로 접근한 영향이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Dry Powder(미집행 투자자원)는 약 1.46조원까지 확대됐다. 단기적으로 투자집행 둔화는 투자수익 창출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이지만, 향후 투자환경 개선 시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스틱벤처스의 2025년 말 AUM은 7,726억원으로, 펀드 청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연간 신규 펀드레이징은 506억원, 투자집행은 71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9.0%, 21.8% 감소했다.

스틱알터너티브의 AUM은 2025년 말 1.94조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PE에 집중됐던 사업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인프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동산·인프라는 향후 Credit과 함께 스틱의 AUM 성장축을 다변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대형 PE 블라인드 펀드의 결성 주기에 따라 AUM 성장률의 변동성이 컸던 구조에서 벗어나, 복수의 투자전략에서 지속적인 펀드레이징이 이루어진다면 그룹 전체 FPAUM과 관리보수의 안정성 역시 높아질 수 있다.

2026년 실적 전망

2026년 영업수익 864억원(-5.3%YoY), 영업이익 194억원(+12.7%YoY) 예상

당사는 스틱인베스트먼트의 2026년 영업수익을 864억원(-5.3% YoY), 영업이익을 194억원(+12.7% YoY)으로 전망한다. 영업이익률은 22.4%(+3.6%p YoY)로, 외형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보수는 운용자산 증가와 전년 대비 활발한 투자 집행에 힘입어 689억원(+8.3% YoY)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성과보수와 투자수익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보수의 경우 향후 유의미한 회수 성과가 기대되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나, 주요 Exit 일정이 지연되면서 성과보수 인식 시점 역시 2027년으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투자수익 역시 하반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산의 평가 및 회수 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올해부터 GP Commitment를 비롯한 자기자본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이 동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업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개선될 전망이다. 지분법손실 축소에 따른 투자비용 감소와 인력 효율화, 성과급 축소에 따른 판관비 절감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관리보수 수익의 성장과 비용 효율화가 성과보수 및 투자수익 감소를 일부 상쇄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이익구조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동사의 영업수익은 371억원(-14.4%YoY), 영업이익 76억원(전년대비 흑자전환), 영업이익률 20.6%(+22.8%pYoY)를 기록했다.

실적 전망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수익	604	938	795	912	864
%YoY	-58.2	55.1	-15.2	14.8	-5.3
관리보수	328	544	598	636	689
성과보수	99	259	88	154	75
투자수익	134	105	82	102	80
이자수익	45	31	27	19	20
영업이익	103	331	134	172	194
%YoY	-85.1	220.0	-59.5	28.1	12.7
%영업이익률	17.1	35.3	16.9	18.8	22.4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158	276	93	150	168
%YoY	-72.7	74.1	-66.2	61.4	11.9
%당기순이익률	26.2	29.4	11.7	16.5	19.5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기 실적 추이

(단위: 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2026
영업수익	166	268	179	299	168	203
%YoY	-25.1	60.0	-3.9	36.2	1.7	-24.4
관리보수	158	158	161	159	149	141
성과보수	-	96	0	58	0	36
투자수익	4	9	14	75	16	21
이자수익	4	5	4	7	4	5
영업이익	-57	47	41	141	46	31
%YoY	적전	7445.2	-37.5	흑전	-180.9	-34.7
%영업이익률	-34.2	17.4	22.6	47.2	27.2	15.1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44.4	34	35	126	37	17
%YoY	적전	흑전	-33.0	흑전	흑전	-49.4
%당기순이익률	-26.8	12.6	19.5	42.2	21.7	8.4

자료: 한국IR협의회 리서치센터, 스타인베스트먼트

Valuation

스틱인베스트먼트의 2026년 예상 PBR은 1.1배로, Historical Band 중하단에 위치. 최근 최대주주변경 기대 소멸로 조정을 받은 주가가 리레이팅 하기 위해선 FRE 성장에 기반한 이익 안정성 제고와 ROE 상승 확인이 필요

현재 스틱인베스트먼트의 2026년 예상 PER과 PBR은 각각 17.9배와 1.1배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밸류에이션을 평가 시 PER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사의 2022년 이후 PER을 살펴보면, 2022년 11.9배, 2023년 9.2배, 2024년 33.4배, 2025년 22.5배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는 주가 변동보다는 성과보수와 투자수익의 인식 시점에 따른 순이익 변동의 영향이 크다. 실제 2024년 PER이 2023년 대비 급등한 이유는 EPS가 2023년 754원에서 2024년 258원으로 665.8% 급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보수와 투자수익 비중이 높고 Exit 시점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확대되는 동사의 특성상 Historical PER을 단순 비교하거나 평균 PER을 적용하는 방식은 밸류에이션 설명력이 제한적이다.

동사의 밸류에이션 평가 지표로 PBR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동사는 신규 펀드에 대한 GP Commitment 및 자기자본 투자를 통해 보유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자기자본의 규모와 이를 활용한 수익창출력이 기업가치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성과보수 인식 시점에 따른 단기적인 이익 변동을 완화하면서 Historical Valuation Band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PER 대비 PBR의 설명력이 높다.

2022년 이후 동사의 주가는 PBR 0.8~2.4배, 평균 1.3배 수준에서 거래됐다. 현재 2026E PBR은 1.1배로 Historical Band 중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동사의 PBR은 ROE와 높은 연관성을 보여왔다. 2021년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모회사 디피씨와의 합병을 통해 상장사로 전환한 직후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PBR은 2배를 크게 상회했다. 이후 2022년 ROE가 6.8%로 급락하면서 PBR 저점 역시 0.8배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2023년 ROE가 11.4%로 회복되면서 PBR도 1.0배 수준으로 정상화됐다.

2024~2025년에는 ROE가 2023년 대비 낮아졌음에도 PBR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실적보다는 미리캐피탈의 지속적인 지분 확대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및 최대주주 변경, 이에 수반한 Capital Allocation과 주주환원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밸류에이션에 선반영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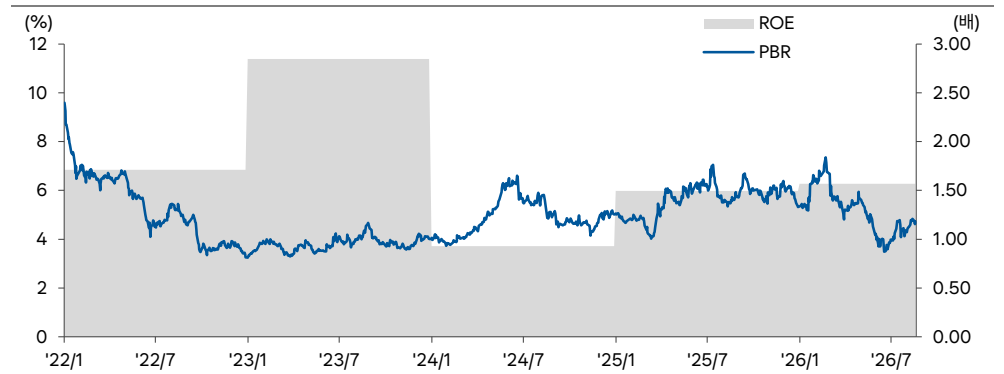
2026년 초 최대주주 변경 및 주주가치 제고 기대가 선반영되며 PBR이 1.8배 이상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이벤트 모멘텀 소멸과 최대주주 교체에 따른 정책자금 및 키맨 리스크 재평가 우려가 부각되면서 주가는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최근 PBR은 전년 대비 낮아진 수준으로, 향후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FRE 성장에 기반한 이익 안정성 제고와 자기자본 투자수익 확대를 통해 ROE가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스탁인베스트먼트 PBR Band



자료: 스타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스탁인베스트먼트 PBR과 ROE 추이



자료: 스타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PEF와의 재무지표 및 밸류에이션 지표 비교

(단위: 억원, 백만달러)

		스탁인베스트먼트	Blackstone(미국)	KKR(미국)	Carlyle(미국)	TPG(미국)
주가(원, 달러)		8,370	143	109	49	53
시가총액		3,250	171,053	97,393	17,457	20,303
자산총계	2023	2,849	40,288	317,294	21,176	9,370
	2024	2,647	43,470	360,099	23,104	10,535
	2025	3,058	47,709	410,144	29,116	13,493
	2026E	3,772	51,601	242,484	29,430	5,102
자본총계	2023	2,528	6,817	22,859	5,191	579
	2024	2,487	8,212	23,652	5,607	784
	2025	2,543	8,666	30,903	5,762	1,185
	2026E	2,819	19,972	30,435	7,219	955
매출액	2023	938	8,023	15,197	2,964	2,396
	2024	795	13,230	22,965	5,426	3,471
	2025	912	14,450	20,454	4,780	4,667
	2026E	864	15,086	10,406	3,775	2,665
영업이익	2023	331	3,015	2,141	-608	33
	2024	134	6,369	893	1,369	-108
	2025	172	6,754	452	1,041	573
	2026E	194	8,860	6,010	1,750	1,196
영업이익률(%)	2023	35.3	37.6	14.1	-20.5	1.4
	2024	16.9	48.1	3.9	25.2	-3.1
	2025	18.8	46.7	2.2	21.8	12.3
	2026E	22.4	58.7	57.8	46.3	44.9
자배당기순이익	2023	276	1,391	3,732	-608	80
	2024	93	2,777	3,076	1,020	23
	2025	150	3,019	2,370	809	185
	2026E	168	4,833	5,673	1,323	1,157
ROE(%)	2023	11.4	19.2	17.9	-10.7	9.2
	2024	3.7	36.9	13.2	18.9	3.4
	2025	6.0	35.8	8.7	14.2	18.7
	2026E	6.3	39.2	11.5	21.6	34.9
PER(배)	2023	9.2	71.1	20.5	N/A	192.7
	2024	33.4	47.6	45.1	18.2	N/A
	2025	22.5	39.8	54.4	27.1	142.2
	2026E	17.9	23.8	17.3	13.5	18.7
PBR(배)	2023	1.0	13.8	3.2	2.8	27.0
	2024	1.3	15.4	5.6	3.2	29.2
	2025	1.3	13.3	3.7	3.7	20.3
	2026E	1.1	10.9	2.1	1.7	6.1
PSR(배)	2023	2.7	6.5	5.2	2.5	4.5
	2024	3.9	12.3	5.0	5.0	5.7
	2025	3.7	10.0	6.0	3.4	1.8
	2026E	3.5	11.3	9.3	4.6	0.0

주: 스타인베스트먼트의 2026년 실적 전망은 당사 추정치 기준, 해외 PEF는 시장 컨센서스 기준, 주가, 시가총액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자료: 한국IR협회의 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리스크 요인은 재무구조의 순차입 구조로 전환. 재무구조의 시장 민감도가 높아짐. 차입 통해 확보된 자본의 수익 창출력 확인 필요

동사의 리스크 요인은 재무구조가 과거 순현금에서 순차입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2Q26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은 각각 250억원, 80억원인 반면 단기 및 장기차입금은 각각 220억원, 5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순차입금은 약 390억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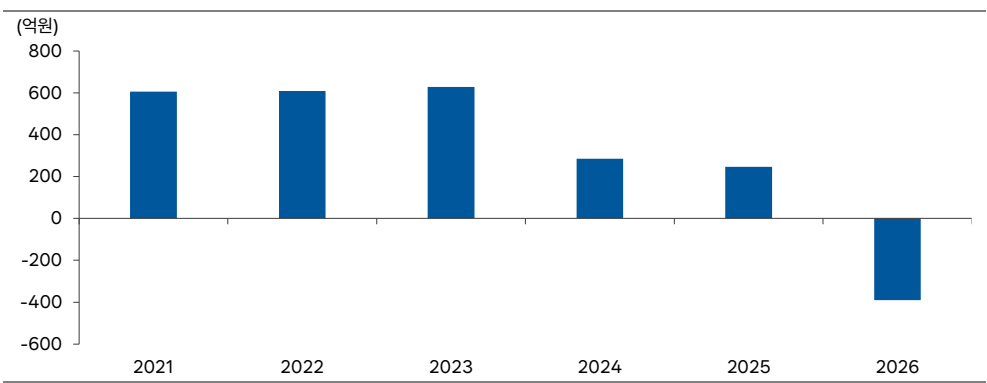
최근 차입금 증가는 GP Commitment 및 자기자본 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다. 자기자본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조달금리를 상회하고 신규 펀드 결성 및 AUM 확대를 통해 관리보수 증가로 이어진다면 차입을 활용한 적극적인 Capital Allocation은 중장기 ROE 제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순차입 전환 자체를 재무건전성 악화로 해석하기보다는 조달한 자본이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다만 과거 대비 재무구조의 시장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성과보수와 투자수익은 Exit 시점 및 자본 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상환 부담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IPO 및 M&A 시장 위축으로 포트폴리오 Exit가 지연되거나 투자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성과보수 감소와 자기자본 투자수익 악화, 현금 회수 지연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추가적인 GP Commitment가 이어질 경우 차입금 증가로 연결되면서 재무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에는 단순한 부채비율보다 순차입금 규모와 FRE 기반의 현금창출력, 자기자본 투자 회수 성과, 추가 GP Commitment 부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FRE가 이자비용과 고정비를 충분히 커버하는지, 신규 자기자본 투자의 ROIC가 조달비용을 상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주요 포트폴리오의 Exit를 통한 현금 유입이 차입금 상환으로 이어지는지, 추가적인 펀드레이징 과정에서 GP Commitment 부담이 얼마나 확대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동사의 재무구조 변화에 대한 평가는 ‘차입금이 증가했는가’보다 ‘차입을 통해 확보한 자본이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향후 AUM 및 FPAUM 확대를 통해 FRE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자기자본 투자 회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현재의 순차입 전환은 성장 과정에서의 자본 활용 확대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투자 회수가 지연되는 가운데 추가 출자와 차입이 지속될 경우 현금흐름 악화와 이자부담 증가, 주주환원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순현금 추이



주: 2026년은 2026년 6월말 기준, 자료: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I.영업수익	604	938	795	912	864
투자수익	134	105	82	102	80
투자조합수익	426	802	686	790	764
관리보수	328	544	598	636	689
성과보수	99	259	88	154	75
수수료수익	18	-	-	3	
이자수익	27	31	27	17	20
II.영업비용	501	607	660	740	670
투자비용	127	64	164	203	155
이자비용	2	3	2	5	20
판매비와 관리비	373	540	494	532	495
III.영업이익	103	331	134	172	194
영업외수익	3	21	3	9	6
영업외비용	2	1	31	1	2
IV.법인세차감전순이익	105	351	107	180	198
V.법인세비용	40	75	13	32	30
VI.계속영업이익	65	276	93	149	167
VII.중단영업이익	93	-	-	-	
VIII.당기순이익	159	276	93	149	167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158	276	93	150	168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R(배)	11.9	9.2	33.4	22.5	17.9
PBR(배)	0.8	1.0	1.3	1.3	1.1
PSR(배)	3.1	2.7	3.9	3.7	3.5
EPS(원)	433	754	258	417	467
BPS(원)	6,347	6,906	6,887	7,052	7,813
SPS(원)	1,653	2,564	2,203	2,531	2,395
DPS(원)	200	250	250	-	-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742	975	621	929	686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82	608	245	377	386
유동금융자산	230	100	81	210	80
기타유동자산	130	267	295	342	220
비유동자산	1,797	1,873	2,025	2,129	3,086
유형자산	99	80	64	51	40
무형자산	88	92	93	94	90
관계기업투자	1,134	1,295	1,716	1,782	2,79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35	313	61	49	50
기타비유동자산	41	93	92	153	110
자산	2,539	2,849	2,647	3,058	3,772
유동부채	137	279	128	199	340
단기차입금	-	-	-	0	220
기타유동부채	137	279	128	199	120
비유동부채	79	42	31	316	613
장기차입금	1	-	-	300	600
기타비유동부채	78	42	31	16	13
부채	216	321	159	515	953
지배주주지분	2,321	2,526	2,485	2,542	2,818
자본금	208	208	208	208	208
자본잉여금	470	470	472	473	473
기타자본	-176	-174	-219	-222	-11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	6	6	5	5
이익잉여금	1,813	2,016	2,018	2,077	2,244
자본	2,323	2,528	2,487	2,543	2,819

주요 재무지표

(%)	2022	2023	2024	2025	2026F
ROE	6.8	11.4	3.7	6.0	6.3
ROA	5.3	10.2	3.4	5.3	4.9
자본비율	91.5	88.7	94.0	83.2	74.7
유동비율	540.0	349.7	485.2	466.3	201.7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스탁인베스트먼트	○	X	X

2026년 7월 15일 기준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으로 1일간 지정된 바 있음.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8.31	자본효율성 극대화 주주환원 정책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원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항목은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항목의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가치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